



천년의 고도 신라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

달빛속에 동궁과 월지, 빛과의 동행

천년의 고도라 불리는 경주는 관광의 도시답게 여러 유적지, 문화재가 곳곳에 있다.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웠던 석굴암, 첨성대 등도 의미있고 소중한 문화재이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맛이 있는, 땅거미가 지면 낮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보았다. 동궁과 월지(안압지)는 경주시 인왕동에 자리한 신라 문무왕 14년(674)에 축조된 궁원지(宮苑地)다.

취재 | 정책개발팀 박재정

동궁과 월지(안압지)의 역사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신라 시대의 연못으로 <삼국사기> 674년을 보면 궁성 안에 연못을 파고 연못 안에 12개의 봉우리를 만들어 무산12봉 이라 불렀는데 무산은 중국 사천성의 명산을 생각하여 지은 이름이다. 여기에 화초를 키우고 진귀한 새와 동물을 길렀다고 하였는데, 규모는 동서 200m, 남북 180m의 구형으로 조성되었고, 크고 작은 3개의 섬이 배치되었다. 1974년 이후 준설공사와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여 주목할 만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었다. 동궁과 월지는 삼국통일이란 대업달성과 함께, 그 부귀영화를 증명해주는 유적지다.

동궁과 월지의 유래

동궁과 월지라는 이름은 신라의 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 초기에 와서 폐허가 되어버린 신라의 옛 터전에 화려했던 궁궐은 간 곳이 없고 쓸쓸하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못 위에 기러기와 오리가 거닐고 있어 이곳을 찾은 이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추측된다. 또한 동궁과 월지의 이름을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한자를 쓰면서 '안압지'라고 부르면서 이름이 바뀌었다가 몇 해 전부터 다시 월지(月地, 달빛이 고운 연못)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마침내 2012년

4월, 도로표지판 및 관광안내 책자 등에 정식 명칭으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다.

동궁과 월지의 용도

신라시대에 임금과 신하들이 주로 잔치를 하면서 놀기도 하였고, 왕자의 거처로도 사용하였다. 또한 해상무역이 발달한 신라가 외국과의 교류를 하면서 외교적인 영접이나 회의 장소로도 쓰였다고 한다. 오늘날의 코엑스나 벅스코 같은 기능도 지녔을 것이다. 신라 문무왕 19년에는 궁궐을 매우 장엄하게 중수하였으며 그 후 예장왕 5년에 군신들이 연회장으로 사용함을 시작으로 많은 임금들이 연회장으로 사용하였고, 신라말 경순왕이 후백제 견훤의 난을 겪은 뒤 931년에는 고려태조 왕건을 초청하여 주연을 베풀어 주며 신라의 위기를 호소하고 고려에 합병해 주기를 청 한 장소로 유명하다.

동궁과 월지 경관조명

경주 동궁과 월지는 2003년을 시작으로 두차례에 걸쳐서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했다. 2003년 11월에 1차로 391개의 등을 달았고, 2008년 1월에 2차로 308개의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노후화로 인해 1차때 설치한 69개 등 철거) 등 총 630개의 조명을 보강했다. 조명은 석벽이나 산책로 등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중 30개는 월지 연못에 LED를 설치해 수중조명으로 사용한다. 이는 경주내 다른 유적지 조명(첨성대 23개, 계림 38개)과 비교해 봐도 경관조명에 많은 공을 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유적지	용량	수량	총수량
경주 동궁과 월지	MH 1kW	18 EA(타워 조명)	630등
	MH 250W	10 EA(수목 조명)	
	MH 150W	227 EA(수목 조명)	
	MH 70W	93 EA(수목 조명)	
	MH 35W	23 EA(수목 조명)	
	NH 150W	110 EA(건물벽 조명)	
	PAR 100W	4 EA(보행로 조명)	
	PAR 75W	12 EA(보행로 조명)	
	LED 36W	30 EA(수중 조명)	
	IL 30W	103 EA(보행로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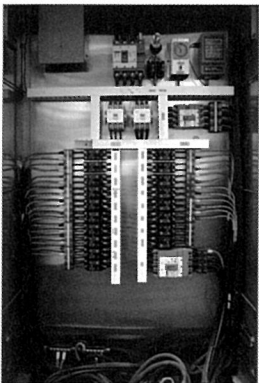
동궁과 월지 전기시설물

경주는 도시 전체가 문화재지역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시청에서는 유적지의 전기시설물 관리를 좀더 세심하게 하고 있다. 동궁과 월지는 따로 비상용 발전기가 없다. 동궁과 월지의 전기설비 용량은 200KW이며, 수전설비는 22900V이다. 경관조명은 위성으로 제어하여 일몰시간에 켜지고 23시에 소등한다. 다른 유적지들도 23시까지 조명을 비추었으나, 지난달 6월부터 동궁과 월지와 첨성대를 제외한 곳은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23시에서 22시로 조명점등 시간을 줄였다.

시설물 관리현황

경주는 도시 곳곳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특성상 전기시설물을 설치 혹은 재설치 하거나 보수,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아야지만 비로소 보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동궁과 월지도 마찬가지인데 2008년 2차 경관조명 설치공사 이후로 지금까지 별다른 보강계획 없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들로도 충분히 멋진 야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어서 당분간의 조명설치 계획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해야할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기조에 맞추어 친환경램프, 고효율 전등 등으로 교체해 나갈 생각이라고 한다. 경관등 교체시 특히 수중등은 어떻게 교체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관람객이 모두 퇴장한후 월지의



경관조명 자동점멸기 내부

물을 거의 다 뺀 상태에서 LED등의 보수, 교체 작업을 실시한다고 했다. 월지는 근방의 남천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연못에 저장한 후 다시 남천으로 흘러가게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동궁과 월지의 전기안전관리자

동궁과 월지의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주로서 대협업체에서 선임되어 있다. 천마총과 동궁과 월지 두군데 선임되어 있는데, 수전설비 전반에 대해서 일반검사는 매월 1회, 정기점검은 3년에 1회로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경주에 있는 유적지 60개소 지역에 전기안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시청에서도 담당공무원을 두어 좀더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관광지라는 특성상 휴일에도 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말 출근도 불사하며 노력하고 있다.

동궁과 월지의 현제

지난달 6월까지 777,149명의 관람객이 동궁과 월지를 방문했다. 경주가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인기있는 수학여행지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수가 아닐 수 없다.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면 조명을 설치하기 전보다 관람객수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학교 등 단체 관광객들이 동궁과 월지의 야간 조명을 보기위해 일부러 저녁에 찾는 일이 많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들도 소문을 듣고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09년부터 3년간 주 1회 '동궁과 월지 상설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경주의 '멋과 향'을 나타내고 문화수준을 높이고자 마련한 이벤트는 동궁과 월지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2011년부터는 '봉황대 뮤직스퀘어'로 장소와 행사 명칭을 변경해서 여전히 진행중이다.

앞으로의 동궁과 월지

"관광지라서 그런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셔서 좋지만, 그런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고장난곳은 없나, 시설의 교체시기는 적절한가 등등 매일 확인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 같은 유적지를 단순히 보러 오는 관광에서 벗어나 가족끼리 즐기며, 두 번, 세 번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거죠."라며 웃는 경주시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최백주주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동궁과 월지가 신라시대의 화려했던 과거의 명성을 뒤로하고 현재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과 야간조명으로 인해 또 한번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을 옛날 신라 사람들이 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